

지역발전의 에너지 발산 '뽐뽐'

전북대, 혁신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 준공식 가져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년 가까이 진행해 온 혁신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과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대학 정문 부근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학무위원과 부속기관장 등 대학 구성원과 발전기금 기부자, 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국고 지원금 27억여 원과 전라북도, 전주시 지원금, 발전기금 등 총 53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혁신교육개발원(지상 2층)과 심천학당(지상 1층) 모두 한옥형으로 지어졌으며, 총 683㎡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시공간 등이 들어섰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신축사업 유공자

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행정·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정화영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탐장과 김선경 전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은 총장 표창을,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이병호 수병원장, 김동수 참프레 회장, 박용근 전라북도 도의원, 조금형 (유)반석건설 대표, 최기영 대목장은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다섯 글자를 새긴 현판은 이 대학 중문과 김병기 교수가 썼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하는 대학의 모습을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의 에너지가 대학으로부터 발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가 2년 가까이 진행해 온 혁신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과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한편, 혁신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이 완공됨에 따라 1994년 지어진 정문 조형물은 대학 구성원 및 당시 발전기금

기탁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전 또는 철거 등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정책 공유 강화 워크숍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최근 전남 구례 화엄사 일원에서 초·중등교장협의회, 전주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진 및 전주교육지원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육발전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주교육 가치와 정책 공유 강화 및 단위 학교에서 추구하는 학교 자치와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전주교육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해 건강한 전주교육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초·중등 교장협의회(초등 이상덕 금령초 교장, 중등 배주영 우림

중 교장)와 전주 화엄협 회장(이강신)은 상호 역할 인식 및 상생관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 전주교육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 교육청에도 감사사를 전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공감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호원대가 19일 본교에서 김응수 배우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호원대, 배우 김응수 초청 특강 '큰 호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찾아 가는 K-Performance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본교 2동 시청각실에서 영화 '타짜' 촬영용 역의 김응수 배우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2030세대들에게 '물고 더블로가' '어이 짧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내가 달건이 생활을 열 일곱에 시작했다' 등의 대사들이 리바이벌 패러디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김응수는 군산 제일고 출신이기도 하다.

배우 김응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환되어 얻은 인기에 보답하기 위해, 연기를 공부하는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기 인생을 들려주고자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특강에서 "젊은 친구들이 인내심을 갖고 한 분야에서 신사처럼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실한 행동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목숨을 걸고 하고자

하는 일에 끝까지 배당한다면 반드시 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4학년 재학 중인 박희찬 학생은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 함께 이 길을 가는 선·후배 및 동기들에게 큰 힘이 되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명사 초청 특강을 자주 갖고, 교육과 현장이 이어지는 다리 역할로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계배 문화예술대학장(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은 "찾아가는 K-Performance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구체적 진로 제시 및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앞으로 명사초청 특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학생자치의 가치와 의미 탐색한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26일 포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연구보원 1층에서 '제13회 전북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생중심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학생자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교직원들을 비롯해 교육전문직, 학생, 학부모, 학생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학생자치로 만들다'를 주제로, 윤석연 학생인권교육센터 인 권운호관이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자치 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오동선 이리고교초 교사, 양희진 나포중 교사, 이누리 완산고 학생이 참여한다. 또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정기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

육주체 간의 학생자치 방향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학교교육과정의 주체로서의 학생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학생중심의 학교행사 기획과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와 연계된 일상에서의 학생자치 실현, 학생회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 부여 등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한수용 특임교수 후학양성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한수용 특임교수가 후학양성과 대학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20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학내 주요 보직교수, 한 특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수용 특임교수는 이날 기탁식에서 "저의 정성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하는 전북대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바랄 게 없다"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용 특임교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복지정책위원장과 중앙당 4050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 글로벌 전사상거래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올 11월에 전북대 산학협력력 업무를 지원하는 특임교수로 임명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아로미마실' 준공... 고용창출·복지후생 개선 목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카페 '아로미마실' 신축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전북대는 20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아로미마실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아로미마실은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대학 내 복지후생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매니저와 장애인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단 자회사다.

뉴실크로드센터 옥외 공간에 196㎡ 규모로 마련된 사업장에서는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한다. 이에 앞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장애인고용공단은 협약을 맺고 아로미마실에서 일하게 될 장애인 직원이 3개월간 비리사다



전북대가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카페 '아로미마실' 신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교육과정과 고품질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지원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전북대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아로미마실이 지역발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소통의 사방방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